

제 목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착수자문회의 녹취요약		
일 시	2019년 1월 29일(화) 10:00 ~ 12:00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3)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향,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한 자문 - 기타: 연구의 체계성과 충실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 등 		
회 의 참 석 자 명 단			
소 속	참석자	성명	비고
○○○○소장	외부위원1	박○○	
○○○○교수	외부위원2	배○○	
○○○○연구자	외부위원3	김○○	
서울시	외부위원4	송○○	
서울시	외부위원5	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위원1	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위원2	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위원3	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위원4	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위원5	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위원6	이○○	

○ 외부위원1

- 기금이 유효한지 연구해서 답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이 식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서울시 전체 기금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기금들의 향방에 대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외에는 없고, 데이터를 만들고 근거를 만든다고 해서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성평등 관련 시민사회역량이라던가 주도성을 발휘해서 어떤 일정한 사업들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지 얘기하는 것 필요함. 또한 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이 기금이 어떤 방향과 내용과 무엇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우리사회에 무엇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금이 사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으로 어떤 결과를 냈으면 좋겠음.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설문조사를 해서는 기금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라는 의견밖에 안 나올 것 같음.

-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는 성평등과 매우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성에 대한 거지 무슨 성평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모분야나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 기존의 기금사업 참여단체에서 기금의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나’ 라는 것처럼 기금에 대해 새롭게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방향에 대한 것을 의견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결과로 제시하면 좋겠음. 자유공모가 있긴 한 해도 적절한 분야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임. 성평등 분야는 굉장히 넓어서 물론 초점이 서울시에서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활동가들에서 더 좋은 사업적인 분야라던가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사업도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주체 중에 젊은 페미니스트도 있지만,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성평등을 실천하는 남성들이 만들어져야 됨. 또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단체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금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들을 조사대상에도 포함해야 함.
- 성평등 기금을 제공하는 어떤 기준, 성평등 기금을 배분을 할 때 성평등 사회에 기여하고 어떤 특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사과정에서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충분히 공지가 되는지도 궁금함. 어떻게 근거 있게 선정, 배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처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젠더평등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 그렇게 잘 주어지지 않았음. 몇 년 전이지만 기억을 해보면 남성위원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젠더평등은 너무 옛날 버전이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했었던 기억도 있음. 선정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써주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외부위원2

- OO구에서도 매년 기금 폐지 이야기가 나옴. 배분기준이라든가 방향성이 너무 없음. 오히려 서울시는 잘되고 있으므로 자치구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음. 각구를 다 조사하는 거는 어렵더라도 자치구의 예산 담당자나 등과 면담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음. [장기적으로] 마지막 말단에서 어떻게 기금이 분배되어야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면접조사와 더불어 설문지 조사는 숫자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해야 하

며, 면접대상자나 조사대상자에 잠재적인 기금 수요자들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요즘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고립되어 싸우고 있음. 따라서 기금사업 등을 통해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을 해야 할 것임. 결국 젠더거버넌스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고립되어있거나 전체적으로 아직 그 열기는 있으나 방법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의 지역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으면 굉장히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좋을 것 같음. 일례로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지원 수요 조사를 하는 것임(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존재에 대한 인식 문항 포함).

- 온라인 조사 시, 기존의 사업을 유형화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뒀냐고 생각 하는지, 어떤 사업이 기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참여단체 스스로가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음.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기금사업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근본적으로는 공모 주제를 관행적이지 않게 내는 것이 중요함. 관행적으로 하다보면 똑같은 것만 나오게 되기 때문임. 매번 굵직한 이슈, 여성 전체 공통 이슈를 제시하면, 사실은 부차적인 이슈들은 여성 복지가 되기 쉬움. 여성복지도 성평등에 관련됨. 빈곤 관련 사업은 빈곤층만 대상으로 하지 젠더평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으며, 빈곤의 여성화가 있기 때문에 성평등에 관련된 것임. 빈곤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청년여성 이런 식으로 교차적인 이슈들에 대한 것들과 여성 공통에 이슈들에 대한 것을 더 넣어서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거나, 공모 주제를 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겠음.
- 개인 남성으로 개인 여성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임. 작년인가 보니까 아빠와 하는 ‘파더’ 붙어 있는 사업이 많이 들어왔음. 그런 사업체가 자체 회원들과 소통하면 되는데, 아버지라는 것으로 사업을 지원받고 있음. 육아에 아버지를 좀 더 많이 참여 시킨다는 차원에서 맞긴 하지만,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면 개인 남성이 수혜를 받고 말지 어떤 사회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임.
- 좀 유연한 슬롯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걸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300만원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들이 연구재단에도 있음. 300만원 주는 작은 지원 사업들이 있음. 최소한 돈을 어디 썼는지 영수증 처리는 하도록 하는 방식임. 예전에 풀뿌리 하니까 마을에 사는 사람 위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주제로 해서 그런 슬롯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임. [비법인 및 단체 또는 개별 영페미니스트 진입을 위한 방법]

○ 외부위원3(서면)

- 양성평등 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에 따라 기금의 용도와 지원가능 단체 등이 달라진 사실이 이 연구에서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타 광역 지자체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기금의 용도와 지원단체 변동이 지자체 및 지역단체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획득된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양성평등에 기여하지 않는 양성평등 사업들을 ‘양성평등’의 이름으로 수용하게 되는 일까지 빈번히 일어남.
- 질문지 설계 시 척도 구성을 염두에 둔다면 질적연구의 자료들을 척도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음. 일례로 기금사업을 통해 각 기관이 해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기대)를 함께 묻는다면, 기금의 확장방향 뿐만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척도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설계 시, 자치구나 마을단위 풀뿌리 여성단체들과 중앙단위 여성단체의 면접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 필요함. 서울은 ‘지역’이지만 ‘중앙’이기도 한 특성이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중앙의 보편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함. 이런 조건들이 연구설계에 반영되면 좋겠음.

○ 외부위원4

- 운영과 운용을 같이 해줄 수 없냐고 지난번에 연구 요청했었음. 사실은 규모가 너무 애매해서 운영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임. 자꾸 공격을 받고 하니까 기금 자체를 분리해서 하면 훨씬 떳떳하게 자생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만들면서 하고 있다. 일반예산에서 독립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라는 욕심에서 드리는 말이었음.
- 남북협력기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간주됨.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문제 제기 안함.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너무 기금 규모가 커서 저리로 융자해 주고 이자가 들어오고 있음. 환경기금은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달리 여성기금에 당위성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미비한 부분으로 공격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음.
- 당장 기금운용위원들을 구성을 바꿀 수는 없어도 선정하는 작업에 재단 담당자가 참여할 수는 있음. 나중에 구조를 바꾸더라도 이번에는 같이 하는 것을 제안함. [지원 및 평가 과정과 선정과정의 이원화 문제 해결 방안]

○ 외부위원5

- 비영리 민간단체에 중복 지원된다는 기사가 떴음. 중복에 관한 문제를 실무자로서 많이 느끼고, 잠재적 수요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기존 지원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기관여성단체 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발굴도 추가했으면 함. 왜냐하면 올해 000대 페미니스트 단체가 접수함. 기관도 아니고 등록된

단체도 아님. [현재 기관을 토대로 한 신청의 한계에 대한 문제]

○ 내부위원1

- 성평등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기획을 정리해내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게 성평등기금 사업인가 하는 오해와 의문을 받지 않도록 어쨌든 기획을 구체적으로 정책이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할 수 있겠음. 그리고 일반 예산보다 기금사업의 중요성이 있을 거 같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용방안이나 운영과정에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기획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세팅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 보는 것들은 할 수 있겠음. 소위 기금 240억이 어떻게 운용되면 좋을지는 내건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기금들이 서울시 안에서 어떤 기금들이 편성되어 있고 그 기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뭔가 시사점이 있다면 아주 부수적으로 거론은 할 수 있겠으나, 이번 연구에서 240억에 대한 운용전략을 짜기는 어려움.
- 재단은 운영 사업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선정은 서울에서 하고 있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고 이런 단체는 이런 것(문제 소지)들이 보인다고 끊임없이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단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체로 여러 해 반복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을 성과로 두고 있는데, 이름이 대표하는 내용이 속속들이 없어서 만약에 이번에 뭔가를 정의하는 것이 완벽한 정의가 못된다 하더라도 계속 토론하면서 성평등 정의(기금과 기금사업 목적과 관련)도 정비가 될 필요가 있음.
- 기금사업의 가치와 심의의 원칙이 명료하게 있어서 어떤 심의자가 오거나 그것을 인지해야 하고, 그 원칙하에 어떠한 선정기준을 세울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완전 심의위원회에게 다 맡겨버리면 (취향대로) 취약계층 더 지원하자 이렇게 의견을 그 현장에서 내버리면 점수를 높게 줄 우려가 있음.

○ 내부위원2

- 개인 활동의 젊은 페미니스트 친구들을 발굴하는 것에 서울시가 관심이 있다면 기금사업에 대한 자유공모분야든 지정공모분야든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분야에 이들이 진입가능함을 적시하는 것을 제안함.

○ 내부위원3

- [여성복지 관련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관 등에서 들어오는데, 여성노인 건강 마사지, 치매 여성 노인들을 위한 활동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변경을 해야 된다고 몇 년 동안 지원해보니, 이들의 변경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음.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성평등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선정과 관련하여, 단체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해 두해만 선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하던 데로 제목만 바뀌도 선정이 됐어. 작년에 그렇게 하면 내년에 선정 못된다고 했는데 선정됐어’ 이런 마인드가 딱 정해져 있다고 느껴짐.

○ 내부위원5

-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으로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오늘 더욱 구체적으로 잡힘. 그리고 약간 방어 논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기금사업 더 장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분석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겠음. 젠더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과 관, 지원주체가 어떤 역할로 가야될지 운영체계 자체나 확일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잠재적 기금 수요자 등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겠음.

(회의내용 정리 및 맺음)